아이 지킴이 '키즈폰'… 고장나면 '안전 빈틈'

도교육청, 등하교 정보 확인 등 가능 단말기 지원
고장 시 도내에서 수리 불가능해 길게는 2주 소요
대체 단말기도 지급 안돼… "문제 해결방안 강구"

초등학교 저학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안심서비스 단말기, 일명 '키즈폰'이 지원되고 있지만 고장 시 수리 불편 등으로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 별로 추진하던 '초등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과 특수학교 학생 중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에게 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실시간 위치 조회, 등하교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한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KT,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키즈폰을 무료로 보급하는 대신 교육청이 학생 1명 당 월 사용료 8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등하교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다 비용 부담도 적어 학부모들의 신청도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학생 4069명이 단말기를 지급 받았으며 올해는 이보다 8.7% 늘어난 4427명이 신청했다.

문제는 기기 고장 시 수리가 불편하다는 데 있다. 단말기가 고장날 경우 이를 고치는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가량 소요된다. 키즈폰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보급되고는 있지만 제조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이들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를 받아야 하는 탓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키즈폰이 고장 나서 AS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제주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면서 "육지로 택배를 보내 수리하고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이가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수리 기간 중에 고장 난 키즈폰을 대신할 수 있는 단말기도 사실상 지원되지 못해 불편을 더하고 있다.

도내 한 통신사 대리점은 "키즈폰을 고칠 때까지 다른 단말기를 쓰려면 임대폰을 대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현재는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행여나 대체 단말기를 지원 받더라도 키즈폰 고장 시 유심칩(가입자 식별 모듈 IC 카드)까지 제조사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고 안심지역 재설정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키즈폰 수리 불편 문제 등에 대해)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와 협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서귀포시 등록차량 인구 1.8명당 1대꼴

10만5200대… 작년比 1.62%↑
차고지증명제 후 증가 둔화

서귀포시 지역 등록차량이 유입인구 증가폭 둔화에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증가세가 주춤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총량을 줄여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차고지증명제 효과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8월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가 10만5200대로 작년말 대비 1.6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인구(19만1129명)를 감안하면 인구 1.8명당 1대 꼴이다.

서귀포시 등록 차량은 2014년 7만9389대에서 2015년 8만6231대, 2016년 9만3537대, 2017년 9만9560대로 매년 해마다 5.10%~8.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작년말에는 전년 대비 3.97% 늘었고 올 들어서는 증가폭이 더 축소됐다.

이같은 증가폭 둔화는 7월 이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고, 올들어 제주로의 인구 유입도 주춤거리면서 차량 전입 대수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종별 등록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만2639대(69%), 화물차 2만8476대(27.1%), 승합차 3761대(3.6%), 특수차 324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등록은 2015년 669대로 전체차량의 0.78% 수준이던 것이 2016년 1296대(1.38%), 2017년 2168대(2.17%), 2018년 3596대(3.47%), 현재 4263대(4.0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가에도 가을볕처럼 따스한 햇살이… 2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가을볕을 맞으며 마늘종자를 파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학교 성 인권 교사 워크숍

제주도내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여성상담소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제주여성인권연대 교육실에서 도내 교사와 강사 등 25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 인권 교육 교사·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10대들이 경험하는 미디어 성문화를 알아보고 현장에서의 교육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외 교사가 직접 성 인권 교육 강의 시연에 나서 교육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4·3 70주년 '동백 배지' 이미지 도안 기증

박경훈 작가, 평화재단 전달

4·3 70주년에 73만개가 제작·배포돼 4·3을 전국적으로 알린 동백 배지(사진)의 이미지 도안이 제주4·3평화재단에 기증됐다.

박경훈 작가의 동백 배지 이미지 도안 기증식이 25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열렸다.

동백 배지 이미지는 평소 4·3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던 박경훈 작가에 의해 디자인됐다. 처음 배지 디자인이 선보인 시점은 2008년 4·3 60주년이었다. 지금보다 다소 작은 사이즈에 60이라는 숫자를 작게 표기한 배지가 처음 제작됐고, 당시에도 4·3과 관련한 활동가들은 모두 가슴에 동백배지를 달고 다녔다. 이후 동백배지 이미지만을 조금 확대한 지금의 동백배지 이미지가 2018년에 선보였다. 4·3 70주년을 맞아 정우성, 안성기, 곽도원 등 유명인들을 대거 동참해 동백배지 달기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4·3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박경훈 작가는 "동백꽃 이미지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감귤 출하 전인데… 비상품 유통 벌써 고개

도, 농가·선과장 3곳 적발
행·재정 지원 제한 등 처분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우려되던 비상품감귤 수확, 유통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조천읍과 도련동,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비상품 감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극조생 상품 품질기준)을 수확 및 유통한 농가와 선과장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지속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 지속적 예찰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단속된 미숙과 감귤은 7000kg 가량이며 도련동 지역의 온라인판매는 단속을 거부하면서 정확한 물량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현재 적발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최대 500만원) 이행중에 있으며, 적발된 물량은(미숙 감귤) 전량 폐기 조치했다.

비상품감귤(미숙과) 출하관계자(생산자,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 추가 적발사항 발견 시 품질검사원 해촉과 재위촉 금지로 선과장 운영 불가토록 조치,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위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숙감귤 수확, 상습 위반선과장, 온라인에서 비상품감귤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급한 수확 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해줄 것과 도민들에게 미숙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 가을 비… 최대 40㎜

제주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6일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산지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27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40㎜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는 제주도와 상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과 도시를 잇는 행복!
상생상회
전국의 대표 먹거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상생상회는 지역의 중 • 소농의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132개 지역의 안전하고 우수한 특산물 2,550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 지역장터 쿠킹클래스 지역정보
상생상회
• 위 치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50m
• 운 영 : 오전 11시~저녁 8시 (연중무휴, 명절 당일 제외)
• 문 의 : 02-738-1010
• 입점상담 : sangsaengmarket@gmail.com

전국체육대회 100년, 서울에서 함께 뛰다(2019.10.4.~10.10)